

“This movie is a record of an interview that took place in 1997 with a male victim who underwent the moment of turmoil in the Republic of Korea, where an individual’s right to possess firearms was legal.

At that time, guns were not used for revenge, but for a cause, since the politics of the time was a mess and everyone in the country thought it was right to do so. It was unthinkable to waste bullets for one’s own feeling and I doubt hardly anyone would have disagreed with this. This may be why Koreans are so courageous and full of responsibility as proprietors of their own country.

The protagonist was not so knowledgeable in politics, nor was he interested in it. But, he was killed by the group of intellectuals, commonly known as the Red. He got killed probably not because he had not been a Red, but because he had not been willing to accept the Red. In fact, it was a time when you couldn’t see your friends without shame unless you join the Red. Still, there were quite a lot of people like the person in the [movie], who were not Red.

Those who called themselves Red, however, did not settle for their own label. Instead, they began calling their opponents Blue. Those who were labeled as Blue, in turn, hated their new nickname so much that they stamped their feet in anger. Accordingly, when the possession of firearms became legal, they started to shoot against each other. As a result, the government ended up banning the firearms. The warfare driven by a cause continued. After all, the two groups beat each other up so that their whole body would become red and blue. As you are well aware of, this fight for a cause is still ongoing.

I visited my father the other day, and his face was bruised blue.”

2005 gimhongsok

이 영상물은 1997년 개인의 총기소지 및 소유권이 법적으로 인정된 대한민국에서 그 당시 희생된 한 남자가 겪었던 격동의 순간을 인터뷰 형식으로 기록한 것이다.

그 당시 총기는 복수 보다는 명분에 의해 주로 사용되었고 그 시절에는 정치가 하도 엉터리여서 온 국민이 그래야 하는 줄 알고 있었다. 개인의 사적인 감정에 의한 복수로 총알을 낭비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고 이에 대해 이상하게 생각 하는 이들은 찾아 볼 수 없었다. 돌이켜 보니 한국인들은 대범하고 주인 의식이 투철한 것인지도 모르겠다.

주인공은 정치를 잘 알지 못하고 관심도 없는 사람이지만 그 시절 빨갱이라 불리던 지식인들에 의해 결국 죽임을 당하게 되었다. 아마도 주인공이 빨갱지 않아서 죽었다기 보다 그가 빨갱이를 알아 주지 않아 죽임을 당한 것일 지도 모른다. 사실 그 시절 빨갱이가 되지 않으면 창피하여 친구들을 볼 수 없을 정도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화의 주인공처럼 빨갱이가 아닌 사람들도 제법 많이 있었다.

그러나 빨갱이라 자처하는 사람들은 빨갱이란 명칭에 대해 만족하지는 않았다. 결국 그들은 자신의 상대편에 대해 파랭이라고 부르기 시작했고 파랭이라 불리게 된 이들은 이 명칭이 너무 싫어 발을 동동 구를 지경이었다. 그래서 그들은 총기소지가 합법화되자 서로에게 총질을 해대었고 그것 때문에 결국 정부는 총기소지법을 폐기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명분에 의한 전쟁은 이후에도 진행되었고 결국 그 두 집단은 온 몸이 빨강도록, 온 몸이 퍼렇도록 상대를 두들겨 패기 시작했는데 이러한 싸움은 현재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아직도 진행되고 있다. 얼마 전 만나 뵈는 나의 아버지의 얼굴은 퍼렇게 멍이 들어 있었다.

2005 gimhongsok